

■ 지금 여기 ■

<보스톤 마라톤 테러 사건>에 대한 단상

이 정 하

I.

2013년 4월 15일(한국시간 4월 16일) 2시 50분경 보스톤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던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톤에서 폭탄테러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실 보스톤 마라톤 대회는 한국인들에게도 매우 친숙한 대회이다. 1947년 서운복이 당시 세계 최고기록인 2시간 25분 39초로 이 대회에서 우승한 이후, 1954년에는 함기룡이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01년에는 이봉주가 51년 만에 2시간 9분 43초의 기록으로 우승했던 대회이기 때문이다.

이 날 대회 우승자가 결승점을 지난 지 2시간쯤 되어 결승점 부근에서 폭발이 2번 연달아 약 12초 간격을 두고 발생하였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폭발물은 사제폭탄 종류였으며, 피해자들의 상처와 의복에서 베어링 등의 파편이 발견되었다. 폭발물에 베어링이나 파편 등을 넣는 것은 수류탄이나 클레이모어처럼 파편 효과로 인해 비교적 작은 폭발물로도 높은 살상효과를 노릴 때 쓰이는 방법으로, 폭발범의 의도적으로 많은 인명 피해를 목표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폭발물 중 하나는 압력솥에 폭발물을 채우고 불베어링과 못 등 각종 파편을 집어넣어 살상력을 극대화시킨 형태였다. FBI와 국토보안국의 보고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압력솥 폭탄은 아프가니스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 등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형태이며, 2010년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에 대한 단상

5월 뉴욕 타임 스퀘어에서 있었던 차량 폭탄 테러 시도 당시에도 이러한 형태의 폭탄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사용한 폭발물은 TNT, C4같은 군용 高폭약이라기 보다는 비교적 低폭약류인 총탄에 사용된 화약을 모아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 제조의 용이함 때문에 단독 테러리스트도 이런 것을 애용하는 편이고 이미 제조법도 널리 공개된 형태이며 폭발물이 일반 총탄용 화약인 경우 미국에서는 특별한 허가 없이 누구나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폭탄제조의 기법만으로는 배후를 특정 짓기는 매우 어려워 보였다.

8살 어린이도 포함된 총3명의 사망자와 18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던 이 테러의 용의자는 26세의 타메를란 안조로비치 차르나예프(Tamerlan Anzorovich Tsarnaev)와 19세의 조하르 안조로비치 차르나예프(Dzhokhar Anzorovich Tsarnaev) 형제로 밝혀졌다. 이들은 체첸인으로 10여 년간 미국에서 거주해오고 있었다. 한편 형인 타메를란은 경찰과의 대치중 폭탄을 두르고 돌진하다가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수법이 전형적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지하드 테러 방식이라는 이유로 일각에서는 제2의 9.11 테러라는 분석까지 나오기도 하였으나, 실제로는 체포 직전 도주하던 동생 조하르가 운전하던 차에 치여 사망하였다. 동생 조하르는 메사추세츠주 한 주택가의 보트 안에 숨어 있다가 중상을 입은 채 체포되었다.

II.

전 세계는 지난 몇 달 동안 체첸인인 차르나예프 형제가 어떤 식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살아왔으며 적법한 절차를 밟아 시민권을 취득하였는지를 뉴스를 통해 듣고 있다. 타메를란의 경우는 계류 중이나 조하르의 경우 2012년 9월 1일부로 시민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이다. 몇몇 평론가들은 이 사건이 오바마 정부의 이민개혁안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테러와 관련하여 러시아정부의 의뢰로 2011년 1월 FBI가 타메를란 차르나예프를 조사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자 이민법 자체가 폐기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은 우려하고 있다.

더 나아가 타메를란이 2012년 다케스탄에 6개월을 머무르면서 이번 폭파사건과 관련된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분석이 나오자 이러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사건발생 4일 뒤인 4월 19일 미 상원 법사위에서 있었던 1차 청문회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척 그래스리(Chuck Grassley)가 이 사건을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법 개혁과 연결지우며 이민법 개혁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후 극우파로 분류되는 스티븐 킹(Steven King) 의원 등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상원통과가 실패한 총기규제법과 더불어 오바마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였다. 공화당 상원의원 랜드 폴(Rand Paul)은 민주당 상원의원 해리 레이드(Harry Reid)에 보낸 편지에서 국가안보문제가 전반적인 이민법 개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연방정부가 장차 테러행위를 저지를 위협이 있는 이민자들을 막는데 모든 조치를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폭탄테러 사건을 이민법 개혁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민법은 잠재적인 위협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국가안보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번 사건과 이민법 개혁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크게는 이민법 개혁을 반대하는 미국 주류사회와 이들의 표심을 얻고자 하는 미국 정치계의 일면과 작게는 이들 형제들을 보는 미국 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엿볼 수 있다.

미국 사회의 이러한 시각은 차치하더라도, 체첸의 불행한 경험으로 인해 난민신분으로 미국으로 이주했던 이들 형제와 그 가족들에 대한 주변의 시선 또한 이들에게 관대하지 않다. 조하르의 삼촌인 루슬란 차르니(Ruslan Tsarni)는 조카의 범행이 “미국사회의 낙오자로서 미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증오심”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체첸 자치정부 수장 람잔 카디로프(Ramzan Akhmadovich Kadyrov)는 “사람들이 내게 왜 (체첸인인)차르나예프 형제를 옹호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해온다”면서 “그동안 그들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느라 기다렸지만 이제는 타메를란과 조하르 차르나예프 형제가 진짜 악마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듯이 이들 형제와 그

가족에 대한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뉴잉글랜드 주 헤비급 권투 대표선수로 활동하기도 했던 26세의 타메를란과 그의 동생 조하르는 스케이드 보드를 즐기고 랩 음악듣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미국 젊은이들처럼 보인다. 2009년 자신의 복싱 경력에 관한 대화중에서, 타메를란은 체첸이 독립국가가 아닌 상황에서 러시아를 위해서 싸울 바에는 미국을 위해서 권투선수 생활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체첸이 겪은 과거의 트라우마가 그에게도 남아 있다는 의미이다. 그가 실제로 이슬람 극단주의자이냐의 여부보다도, 전쟁과 강제이주를 비롯한 체첸이 겪은 불행한 기억과 그로 인해 고향을 떠나 혼돈 속에서 살아갔던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보다 더 큰 관심이 쏠리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III.

체첸인들은 동북 캅카스 산악지대에서 거주하며 고유의 체첸어를 사용하는 독자성을 띄고 있던 집단이었으며,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에 걸친 러시아에 대항한 무슬림부족들의 저항 속에서 전사(戰士)로서의 명성을 쌓았다. 이맘 샤밀(Imam Shamil)을 중심으로 한 저항이 1859년 진압된 이후 많은 체첸 전사들은 자신들의 고향인 캅카스를 떠나 자신들의 뛰어난 군사기술을 이용하여 주로 오토만제국에 고용되어 살아갔다. 오토만제국군에서도 그들의 군사적 명성으로 북캅카스 산악인이라는 의미인 체르케스(Circassian)로 불리며 자신들의 군사적 전통을 유지하는 부대가 따로 운영되기도 하였다.

러시아제국이 무너진 이후에도 많은 체첸인들은 고향에 머무를 수 없었다. 1917년 혁명 이후 레닌의 민족자치 방침에 따라 1924년 체첸자치주와 잉구시(Ingush)자치주가 설치되고, 1936년에는 체첸-잉구시 자치공화국으로 승격되기도 하였으나, 1944년 독소전 당시 독일군에 협력했다는 명목으로 당시 체첸 인구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약 50 만 명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당하였고, 이후 강제이주방침에 대한 저항과 이주 당시 사망으로 인해 약 23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비밀경찰 총수 라브렌티 베리아(Lavrenty Beria)의 보고서에 의하면, 소위 체체비차 작전(Operation Chechevitsa)으로 불린 조치를 통해, 91,250명의 잉구시인을 포함한 총 478,479명이 강제 이주 당하였다. 이들은 스탈린 사망 후 4년 뒤인 1957년에야 흐루쇼프에 의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이러한 강제 이주의 경험은 체첸인들 에게 참혹한 집단기억으로 남았을 것이다.

1957년 이후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차르나예프 형제의 아버지 안조르처럼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 등지에 남아 고단한 삶을 꾸려갔고, 고향으로 돌아간 체첸인들 에게도 오랜 기간 동안 단절된 생활과 기억으로 인해 다시 찾은 고향에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고 조직범죄 등에 연루되곤 하였다. 역설적이게도, 체첸인들은 소연방시절 군과 비밀경찰에서 많은 활동을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군 장교단과 KGB등의 비밀경찰 조직에서 복무하는 비율이 러시아계를 제외한 다른 집단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체첸 독립의 영웅이자 지도자인 조하르 두다예프(Dzhokhar Dudaev)는 소연방공군 소장으로 복무하면서 핵폭격기 전단을 지휘하기도 하였다.

소연방의 붕괴도 체첸인들 에게 편안한 안식을 보장하지 못했다. 1991년 10월 체첸의 대통령에 취임한 조하르 두다예프는 1993년 체첸의 독립을 선언하고 非체첸계 주민들을 추방하기 시작하였고, 체첸 지역의 유전과 송유관 시설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를 포기할 수 없었던 러시아와의 갈등으로 인해 제1차 체첸전쟁(1994-1996)과 제2차 체첸전쟁(1999-2009)이 발생하였다. 2009년 러시아군이 철수함으로써 체첸에서의 전쟁은 종식되었으나, 전쟁이 남긴 상처는 주변 공화국, 즉 차르나예프 가족들이 미국 이민이전에 잠시 머물렀던 다게스탄과 같은 지역들에 잔존하고 있다.

IV.

두 형제는 체첸인 안조르 차르나예프(Anzor Tsarnaev)와 다게스탄인 주베이다트(Zubeidat)사이에서 키르기스스탄에서 태어났다. 두 형제의 아버지인 안조르가 1940년대 스탈린의 강제이주 이후 키르기스스탄에 정착한 이후, 이들 가족은 미국 이민이전까지 인구 55,000명의 北키르기스스탄의 토크모크(Tokmok)에 살고 있었다. 토크모크는 소련방 시절에는 군용 항공기의 시험비행과 생산 시설이 있던 곳으로 군수산업이 매우 번성했던 곳이었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와 함께 이곳 군수공장들이 문을 닫게 된 후에는 실직자가 넘쳐나는 낙후된 지역이었다. 2000년대 초반 이들 가족은 1990년대 이미 난민프로그램을 통해 이주했던 안조르의 형제들의 권유로 미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하였다. 안조르와 그의 부인은 난민자격으로 2002년 초 미국에 도착하였고, 곧 그들의 두 아들과 두 딸도 미국으로 이민하였다. 차르나예프 가족은 매사추세츠주 소머빌과 캠브리지 사이의 저소득층 주택가에 등지를 틀었다. 이들 역시 이민자들이 흔히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했다. 안조르는 길거리에서 시간당 10달러에 차를 수리해주는 자동차수리공으로, 주베이다트는 미용사로 일하였다. 2004년 주베이다트가 ‘되팔려는 목적’으로 지역의 한 상점에서 여성의류 9점을 훔친 죄로 체포된 경력에서 볼 수 있듯이 생활고를 벗어나기가 힘들었던 듯하다. 어메리칸 드림의 주된 경로인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도 이들 가족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타메를란은 2006년 가을학기에서 2008년 가을학기까지 병커힐 커뮤니티 칼리지(Bunker Hill Community College)에서 3학기동안 파트타임 학생으로 회계학을 공부하였으나, 고질적인 경제적 문제로 학업을 중단하였다.

이민 직후부터 아버지의 권유로 권투를 시작하였던 타메를란은 대학을 중퇴한 후부터는 선수 생활에 집중하였다. 하지만 뉴잉글랜드 지역예선에서 우승한 타메를란은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열린 2009년 골든글러브 전국 토너먼트에도 출전하였으나 1차전에서 탈락하였다. 권투 챔피언이 되겠다는 꿈이 멀어지는 가운데 사생활도 순탄치 않았다.

타메를란은 2009년 여자 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하였다. 당시 사건은 2010년 배심원재판에서 기각 처리되었다.

위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어머니 주베이다트는 타메를란이 술과 대마초에 빠져들까 걱정하여 이슬람교에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그 결과 타메를란은 이슬람교에 대한 책을 읽고 기도를 시작했으며 이슬람교에 점차 심취하였고, 다른 가족들도 보다 엄격하게 이슬람 율법을 따를 것을 촉구하였다.

이 문제로 이들 가족에게 내분이 발생했다. 타메를란의 권고에 따라 주베이다트가 차도르를 착용하자 남편 안조르가 반대의 뜻을 밝혔다고 한다. 안조르는 자신이 소연방 시절에 교육을 받고 성장했으며, 당시에는 무슬림들이 엄격한 규율을 따를 필요가 없었던 시절이라고 언급했다. “나는 아들이 언젠가는 챔피언이 되도록 혹은 다른 미국인들과 같이 무엇인가를 이루도록 훈련시켰지만, 그는 모든 걸 저버렸다.” 이러한 갈등과 건강상의 문제로 안조르는 부인과 헤어지고 이후 키르키스스탄으로 되돌아갔다.

치과의사를 꿈꾸던 동생 조하르는 고등학교를 2011년 졸업하고 매사추세츠 주립대학(University of Massachusetts)에 진학하였다. 의미심장한 것은 조하르라는 이름이 체첸인들 사이에서는 흔한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차르나예프 가족이 형의 이름을 무슬림 영웅 티무르(Timur)에서 따왔다면, 동생의 이름은 무하마드(Muhammad), 아마드(Ahmad) 혹은 이사(Isa) 등의 이슬람식 이름이 아닌 러시아에 대항한 체첸전쟁의 영웅 조하르 두다예프에서 따왔음을 알 수 있다. 차르나예프 가족이 전통적인 이슬람적 가치관외에도 세속적이나 한편으로 체첸의 불행한 역사로 인해 체첸인이라는 또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V.

타메를란은 한동안 죽어서도 갈 곳이 없는 비참한 운명에 처해져 있었다. 미국에서 그의 시신을 출신지인 러시아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향이나 마찬가지로 체첸 정부마저도 그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체첸 자치정부 수장 카디로프는 “체첸과 차르나예프 형제들을 동일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들은 미국에서 성장했고, 그들의 시각 또한 미국에서 형성되었다. 만일 악의 뿌리를 찾는다면 그 장소는 미국일 것이다. 그들은 체첸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미국인이다”라고 언급하면서, “그들은 키르기스스탄에서 태어나 부모들에 의해 미국으로 보내졌으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그 결과”라고 꼬집었다.

타메를란이 테러 전까지 살았던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시 당국은 “시민들이 간신히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쓰고 있는 시점에 테러범을 우리 관내에 묻는 것은 그들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것이며 강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타메를란의 시신을 보관 중인 미국 매사추세츠주 우스터시 장례식장의 피터 스테판(Peter Stephan) 대표는 “장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은 모두 타메를란의 시신을 체첸으로 보내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러시아에 머물고 있는 타메를란의 어머니 주베이다트는 스테판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와 “아들의 시신을 러시아로 옮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하지만 패트릭 밴트렐(Patrick Bantrel)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로 타메를란의 시신을 러시아로 보낼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사건발생 약 3주뒤인 5월 9일(한국시간 5월 10일) 타메를란의 시신을 관리해오던 우스터시 경찰 발표에 따르면, “한 용기있고 동정심있는 인사의 도움”으로 비공개 장소에 매장되었다고 한다.

급진적 이슬람주의로 무장한 지하드용사의 이미지보다는, 고향을 떠나 정착하지 못했던 자신의 조상들처럼 타메를란의 시신도 갈 곳 없이

떠도는듯하다. 아마도 이번 사건은 불행한 과거로 인해 체첸인들이
떠안고 있었던 분노와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 그리고 그 와중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지만 ‘거의 항상 그렇듯이’ 실패하고만
한 체첸인 이주가족의 절망을 보는듯하다.

서울대학교 budennyi@gmail.com